

# 업계내 서로의 원칙을 지켜나가자.

편집부

금년 한국양봉조합에서「꿀벌과 자연」1월호를 시작으로 월간지를 발간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꿀벌과 자연」월간지가 우리 양봉인들에게 발 빠른 최신 뉴스를 전달하는 잡지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1월호 내용 가운데 특히 p26~33에는 ‘한국양봉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실렸다.

그 기사에서는 본 협회와 관련하여 마치 협회가 우리 양봉업계 내에서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협회 소속의 양봉산물연구소가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식의 내용이 게재 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협회는 경영논리를 우선하는 단체가 아니며 큰 틀에서 양봉산업의 정부 정책을 떠나가고, 더 나아가 생산농가보호와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양봉산물의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정책을 떠나가고 있는 양봉인의 단체이다.

협회와 조합은 서로 같은 길을 가야 하고, 같은 길을 가다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의견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여 서로에 대해 비방을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양봉산업발전과 화합을 저해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조합이 협회에 대한 비방을 자제 해주길 바라며, 무자녀에는 조합의 경영논리 보다는 업계 전체의 큰 틀에서 생산농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펴주길 당부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또 한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양봉조합 000이사는 양봉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양봉인 및 학계 등 서신을 발송하여 본인주장을 펴 왔고, 최근에도 단독으로 본인의 주장을 한국양봉협회 임원/지회장 앞으로 서신내용을 보내는 등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모든 단체는 단체장과 임원, 대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 등을 1차 논의하고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합 임원이 아닌 협회의 임원, 지회장, 회원 등에게 서신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자세는 한국양봉조합의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올바른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자기주장을 펴기 위해서 양봉산업전반에 대해 방송국에 이미 제보했다는 내용으로 아직 제보하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한 것은 한국양봉농협의 임원과 조합원을 무시하고 전 양봉인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가령 본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조합임원, 조합원부터 먼저 설득하고 업계 전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양봉업계를 위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발전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양봉조합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협회, 양봉조합 등을 운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항상 한국양봉조합원을 대표하는 임원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서로의 원칙을 지키고, 이러한 문제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 주기 바라며, 양봉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